

“시민 돕지 못한 그날의 기억 평생 죄책감으로 남아”

5·18 생생한 목격 미국인 폴 코트라이트 인터뷰

“왜곡된 5·18 민중항쟁을 미국인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필 중인 책 제목도 ‘광주의 목격’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6층에서 만난 폴 코트라이트(63·Paul Courtright)씨는 유쾌한 웃음과 함께 “안녕하세요”라고 유창한 한국말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눴다. 미국인인 그는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광주와 나주 등을 오가며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소속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폴 코트라이트씨가 5·18 당시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19일 광주 터미널에 도착한 그는 터미널에서 군인이 어린 학생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다.

폴씨는 “학생이 시체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도와야 한다는 울림이 있었지만, 정작 공포감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당시 장면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 상황을 막지 못한 죄책감은 지금까지 남아있다”며 고개를 떨궜다.

남편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이를 뒤인 21일 ‘광주에서 큰일이 벌어졌다’는 평화봉사단 친구 팀 완버그의 말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광주로 향했다가 평생 잊지 못할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 이후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 있는 평화봉사단 본부를 찾았던 그는 짐 메어 본부장과 함께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폴씨는 “2시간 이상을 기다렸지만 결국 속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광주에서 겪은 일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면서 “언젠가는 광주의 아픔을 전세계에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록으로 남겼고,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국관련 자료실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와 스캔본을 기증했다”고 말했다.

폴씨는 39년이 흐른 지금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질문에 “다채로운 감정이 순식간에 지나간 현상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잊혀진 광주는 분노했으며,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해 슬픔의 공간으로 변했고, 진압군이 철수하자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폴씨는 또 “당시 외국인으로서 차인과 질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광주는 질서가 잡히고, 모든 광주시민이 외국인인 저를 더욱 반기는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서 “시민들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도청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토론하고, 길가에서는 밥을 나눠주는 모습에서 힐링 프로세스를 느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인들 5·18 나보다 더 몰라

북한군 투입설까지 나와 충격

진실 알리기 위해 책 집필 중

했던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폴씨와 광주의 인연은 봉사라는 단어가 시작점이다. 외교관을 꿈꾸며 미국 북부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폴씨는 대학 진학 후 외교관의 삶을 ‘규격에 갇힌 삶’으로 느껴 평화봉사단에 지원하게 됐다고 한다. 평화봉사단은 아시아에 관심이 많던 그를 1979년 한국으로 보냈고, 나주군 남평면의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인 ‘호혜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식 반찬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폴씨는 나주 남평과 광주를 수시로 오갔고, 제2의 고향이 광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한다.

아직도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1980년 5월 광주의 그날, 폴씨는 남편이 아닌 광주에 있었다고 한다. 1980년 5월



미국평화봉사단원 출신 폴 코트라이트씨가 최초 공개한 5·18 당시 광주~나주간 차단지점 사진. 5·18 진압군이 군용트럭과 민간 택시를 이용해 도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폴 코트라이트씨 제공>

취임 2년 문 대통령 호남 지지율 62%

1주만에 6.9%p 하락...한국당 호남 지지율 20% 넘어서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기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해 40%대 후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특히 그동안 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호남 지역민들의 부정평가도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져 중간집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소 격차를 보였다. 호남에서도 그동안 10%대 지지율에 머물렀던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20%대로 올라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0일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48.6%(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3.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8주 연속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47.0%(매우 잘못함 34.7%, 잘못하는 편 12.3%)였다. 긍정 평가의 격차는 8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엮일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감소한 4.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경기·인천과 호남, 충청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이 가운데 호남지역은 긍정평가가 62.2%였고, 부정평가가 33.9%였다. 이는 지난주(지난달 29~30일) 조사결과 긍정평가 69.1%에 비해 6.9%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부정평가는 25.9%에서 8%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38.7%를 기록해 3주간의 오름세가 멈췄다. 한국당은 1.3%포인트 오른 34.3%의 지지율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1주일 전 2016년 4월 1주차에 전신인 새누리당이 기록한 지지율

(34.8%) 이후 약 3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4.4%포인트로 주간집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소 격차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0.9%포인트 오른 7.1%로 7%대를 회복했다. 바른미래당은 0.3%포인트 내린 4.9%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은 0.1%포인트 내린 2.2%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호남지역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9.1%였고, 자유한국당은 21.8%였다. 이어 정의당 6.7%, 민주평화당 5.4%, 바른미래당은 1.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호남에서 57.1%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한 주 만에 8%포인트 떨어졌고, 자유한국당은 14.9%에서 6.9%포인트 올랐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지난주 각각 5.9%, 4.6%에서 각각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당내 갈등을 빚어온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3.4%에서 이번주 1.5%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5·18 39주년...여야 정치권 광주 집결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광주에 집결한다. 민주당은 3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참배에는 정동영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최고 회의를 열고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6일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광주를 찾는다. 시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5·18묘지를 참배한 뒤 오후엔 옛 전남도청에서 복원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5·18단체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이어 5·18 망향자 퇴출과 5·18 진상 규명 및 역사

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도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날 5·18묘역에서 열리는 39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도 전야제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총선을 1년가량 앞둔 데다 왜곡 논란 등으로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하나투어

하나팩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우리가족 여행예보 많음

중국/마카오/러시아/몽골

몽골

1,199,000원~

○ 울란바타르/테렐지 5일, 6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3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3일 5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블라디보스톡

399,000원~

○ 블라디보스톡 4일, 5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3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월,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마카오

499,000원~

○ 마카오 4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3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월,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홍콩/마카오

677,000원~

○ 홍콩/마카오 4일, 5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3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화,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일본/대만

도쿄

799,000원~

○ 동경/마코토 4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4,00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매일출발3일4일

오사카

499,000원~

○ 오사카/고토/나라 4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월, 수, 목, 토, 일 2일 3일 4일

동남아

보리카이

497,000원~

○ 보리카이 4일, 5일, 라카멜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세부

887,000원~

○ 세부 5일, 6일, 제이퍼크리조트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화,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다낭

569,000원~

○ 다낭/호이안 4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매일출발 3일 4일

상해

329,000원~

○ 상해/양구/주각리 4일, 5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상해/왕산

549,000원~

○ 상해/왕산 4일, 5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상해/장가계

1,099,000원~

○ 상해/장가계/완가계 4일, 5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후쿠오카

579,000원~

○ 후쿠오카 3일, 4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모이타

737,000원~

○ 모이타/우후인렛 3일, 4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월,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방콕

439,000원~

○ 방콕/파타야 5일, 6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대만

604,000원~

○ 대만/지우펀/아류 4일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4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매일출발 3일 4일

코타키나발루

699,000원~

○ 코타 5일, 6일, 시내 종합극

○ 한자일 기어드+기사경비 530~ 선택장애 있음

○ 운항일 수, 목, 금, 토, 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형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가외 부당항목은 제외됨.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은 도착비지요금은 상품에 따라 불포함됩니다. ■ [선택장애]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상)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실 이상 2인 1실/교통신/호텔(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객차/침실/불편점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장애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장애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건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행) ■ 여행 유의 ● 여행 자체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성 있습니다

여행, 하나투어!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